

청년여성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의 계층화

이 희 정*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탐색하고 이행 계층화 현상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20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여성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교-직장 이행과정을 집단기반분석으로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학교-직장 이행이 차별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지연이 현저해지고 이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행과정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에 부모 학력 효과뿐만 아니라 가구자산 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사회경제구조 변화가 학교-직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청년여성 내부에서 차별화되어 청년여성의 전체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계층구조가 학교-직장 이행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 청년여성, 학교-직장 이행, 이행과정 계층화, 집단기반분석, 다항로지트귀분석

1.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지연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공간적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캥거루족’, ‘NEET족’ 등으로 호칭되는 청년이 2016년 현재 OECD기준으로 약 177만명, 15~29세의 18% 수준에 이르고 그 비중이 최근 들어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기현, 2017). 4년제 대학교 재학기간이 평균 5.4년으로 조사되고 조사대상 대학생의 43.4%가 졸업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한국경제, 2018.1.17.), 이러한 졸업 유예의 일반화는 ‘NG족’, ‘등지족’이라는 신조어로 상징화되고 있다(매일경제, 2018.6.17.). 또한 졸업을 하더라도 첫 취업까지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27.9%에 달하고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권현지, 2017: 141).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이행 지연의 심화와 함께 청년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양상도 관측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0~24세와 25~29세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며 30~34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보여준다.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전임연구원

반면에 여성의 경우 20~24세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5~29세는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30~34세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흐름은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이행 양상에서 성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여성 내부의 이질성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러나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연구는 학력별 고용문제에 대한 고찰 등에 머물러 있다(강순희, 2014: 319).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결혼과 출산 등의 생애주기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생애주기에서 결혼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탈, 즉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의 재진입에 대한 탐색,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에 따른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대한 분석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탐색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여성 노동시장에서 “낮은 고용율, M자형 노동 참여, 높은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신경아, 2016: 322)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여성 노동시장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학교-직장 이행을 분석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청년층 전체에 대한 이행 유형을 분석하면서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청년남성과 청년여성의 이행 차이를 관측할 수는 있으나,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분화 등 청년여성 고유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장상수, 2015: 505), 개인의 노동시장에서 상태의존적 특성상 노동시장 진입 이력이 전체 노동생애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순미, 2015: 98-99). 특히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초기 이행은 여성의 노동시장 불연속성, 즉 경력단절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되고 있다(은기수·박수미, 2002: 129; 오은진·민현주·김지현, 2009: 154-155). 따라서 청년여성의 학교에서 질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청년여성의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은 학력, 가족배경 등 미시적 요인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와 환경, 경제성장, 소득분배 등 거시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한국사회는 지난 20여년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비정규직과 경력직 고용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양극화, 고용구조의 분절화 확대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에서 한국 여성 노동시장의 고유 특성에 더하여 한국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중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년 고용시장의 열악한 여건, 노동력 이동성 증가와 고용안정성 약화 등을 고려하면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이행은 학교 졸업후 정규직 직장취업이라는 단선적인 이행보다는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행일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 학력이나 직업 등 가족 배경을 이행 기간이나 성과에서의 양극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 현상을 발견하고 있다

(Sandefur, Eggerling-Boeck, and Park. 2005: 311; Schoon, Ross, and Martin, 2009; 박미희·홍백의, 2014: 44; 변금선, 2018: 129). 이는 2013년 이후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 심화 추세(통계청, 2017)에 따라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거시경제적 환경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층은 사회경제 지위에 따라 개인 삶의 설계에서부터 분절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이 경험하는 현실과 삶에 대한 태도가 매우 상이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정수남·김정환, 2017: 208). 한국사회의 불평등구조 심화와 청년층 분절화 강화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준비과정에서 사회계층 유지를 위한 “가족적 전략” 또는 사회계층 상승을 위한 “투자전략”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가족배경의 관련성이 커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이행 지연이 가족배경에 따라 계층화되고 노동시장 이행결과가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불평등의 다양한 형성요인, 특히 가구자산을 고려하여 이행 계층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부모 학력이나 직업을 중심으로 이행 계층화 현상을 접근하고 있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을 살펴보고, 이행과정이 한국사회의 거시적 요인과 계층구조적 요인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청년여성의 이행 계층화가 강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거시적 환경변화를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구분하여 두 시기의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비교분석하고,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이 어떻게 계층화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 연구

청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은 중요한 연구과제중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학계로부터 조명되고 있다(Schoon and Lyons-Amos, 2016: 11). 학교 졸업, 노동시장 진입, 가족 형성 등의 일련의 이행이 생애과정에서 중요하지만 복잡하고, 개인차원 뿐만아니라 사회전체 차원에서 함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직장 이행은 일련의 이행의 첫 과정이자 초기 경력 발달단계로서 최근 들어 그 이행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학계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Buchmann and Kriesi, 2011: 482). 청년층의 일련의 이행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청년 개인의 전체 생애과정에 장기적이고 누적적 변화를 초래하고, 청년의 생애 관점 형성과 부모로부터 독립 등에 영향(Brzinsky-Fay, 2014: 214)을 줄 수 있으므로 순조로운 학교-직장 이행은 청년 개인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학교-직장 이행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은 이행이 사회문화 구조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성취의 결과물이라는 데서 연유한다. 또한 ‘엄친아’, ‘캐거루족’, ‘NEET족’, ‘NG족’, ‘둥지족’ 등의 신조어가 보여주듯이, 이행의 차이에 따라 부모에게 미치는 심리·경제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노동, 복지, 경제, 사회 등 사회 전체 측

면에서의 파급 효과도 상이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의 학교-직장 이행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양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행 양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등이 꾸준히 탐색되고 있다.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은 분석 대상과 분석 요소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를 분석 대상 측면에서 대별해보면, 특정 사건의 발생을 중심으로한 연구에서 일련의 사건의 진행과정으로 접근하는 연구로 분석의 폭이 넓혀지고 있다(박미희·홍백의, 2014: 23-28). 특정 사건 중심의 연구는 취업이나 실업 등 특정 노동시장 내 상태 변화, 그 변화 시기, 상태의 안정성 등에 착안하여 이행을 분석한다. 서구 학계의 학교-직장 이행 연구 대부분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출생한 세대를 중심으로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Buchmann and Kriesi, 2011: 484; Schoon and Lyons-Amos, 2016: 11). 이러한 특정 시점에서의 이행에 주목한 분석은 상태 변화의 조건과 상태 변화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Brzinsky-Fay, 2014: 219).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학교 졸업이후 취업이라는 이행의 선형성과 이행의 완결성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선형적 이행과 완결된 이행의 범주로 포괄할 수 없는 상태 변화, 예를 들면 첫 일자리 이후의 직장 이동, 노동시장 이탈, 정규 학교 졸업이후 학업 등의 다양하고 비선형적인 이행 양상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Brzinsky-Fay, 2014: 219). 또한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학교-직장 이행이 정규교육 졸업이후 취업이라는 전통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탈표준화되고 이질화되며 분화되고 다양화된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일반화되고 있다(Buchmann, 1989). 이에 일군의 연구는 이행을 단일 사건이 아닌 사건들의 과정으로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erckhoff, 2000: 463; Hillmert, 2002: 676; Brzinsky-Fay, 2007: 409). 사건들의 총체적인 궤적이나 경로, 다시 말해 일련의 사건 배열들의 순서와 지속기간 등에 초점을 두고 이행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Buchmann and Kriesi, 2011: 487). 단일 사건보다 복잡한 사건의 배열에 대한 분석을 허용하는 다양한 통계 기법이 개발(Nagin, 2005; Brzinsky-Fay, 2014: 221-222)됨에 따라 상태 배열이나 이행의 궤적이 어떻게 상이하고 유형화될 수 있는지, 상태 배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의 요소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행의 시간, 이행의 성과 그리고 이행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행의 시간 관점은 이행의 속도 또는 소요기간, 상태나 배열의 지속기간 등을 분석한다. 학교-직장 이행의 지연이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Buchmann and Solga, 2016: 1), 이행의 시간 측면은 이행 연구의 일차적이고 기초적인 분석 요소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 자신의 학력과 이행 속도 또는 기간과의 관계,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탐색 문제, 직장으로 이행 지연에 따른 결혼, 출산 등의 지연 효과 등의 이슈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행의 성과 관점은 이행 결과로 도달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노동시장에의 통합성, 이행에서의 상태 변동성 등을 분석한다. 이행 성과의 성별 차이, 학력 과잉,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탐색 등의 주제 등이 탐색된다. 특히 청년의 이행 지연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행의 시간과 성과의 관계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여부가 중요한 분석 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Heyne and Gebel, 2016: 47). 이행의 원인 관점은 이행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이행은 청년 자원 그리고 교육 제도, 노동시장 구조, 경기 변동 등 구조적 기회와 제약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Buchmann and Kriesi, 2011: 482; 장상수, 2008). 기존 연구들은 청년 자신의 학력이 이행의 시간이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행의 핵심 결정요인중의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성인으로 이행이 사회문화 구조적 환경과 청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생애과정 관점에 따라 제도화되고 구조화된 환경의 변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성장 둔화 등이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경제의 장기 구조 변화 등이 청년 이행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증가로 이어지고(Buchmann and Solga, 2016: 1), 이행 지연과 불안정성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문혜진, 2013: 222). 주목할 점은 이러한 환경 변화가 모든 청년에게 영향을 주지만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Schoon, Ross, and Martin, 2009). 기존 연구는 특히 부모 학력이나 직업 등 가족 배경을 이행 시간이나 성과에서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Sandefur, Eggerling-Boeck, and Park. 2005: 311; Schoon, Ross, and Martin, 2009; 박미희·홍백의, 2014: 44; 변금선, 2018: 129). 학교-직장 이행은 제도화된 생애과정에서 여러 역할과 지위 변화가 수반되는 사회적 지위 통로(Buchmann and Kriesi, 2011: 482)라는 점에서 본래 지위의 불평등이 수반되는 사회 계층화 과정이다. 만약 자녀의 학교-직장 이동에 대한 부모 계층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신광영, 2013; Dabla-Norris, Kochhar, Suphaphiphat, Ricka, and Tsounta, 2015)와 맞물려 사회계층의 확대 재생산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기존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직장 이행을 단일 사건보다 일련의 과정으로 추적하는 연구 경향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의 다양화, 분절화 그리고 계층화 추세가 이행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는 청년 세대간 또는 세대내 학교-직장 이행의 비교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성별 비교 분석보다는 성별 영향을 통제하는 데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는 이행 경험에서 현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거나(Schoon, Ross, and Martin, 2009) 남녀간 차별화된 이행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나(Heyne and Gebel, 2016: 47), 이러한 연구들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행의 계층화 현상이 부모 학력이나 직업을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다. 이행 계층화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최근 사회계층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확장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계층의 다양한 결정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현저하고 자산이 학력, 직업처럼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공주·신광영, 2018)는 점 등이 이행 계층화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한국 청년여성 학교-직장 이행 연구

한국 여성 노동시장은 “낮은 고용율, M자형 노동 참여, 높은 성별 격차”로 규정되고 있다(신경아, 2016: 322).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한국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도 여성의 노동생애

주기에서 결혼과 출산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효과 분석(은기수, 2018), 출산전후 여성 취업 유형 분석(민현주, 2012),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취업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오은진 외, 2009; 민현주, 2011),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에 따른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대한 탐색(임정준, 2010; 신광영, 2011; 허은, 2013; 이순미, 2015)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탐색해오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학력별 고용문제에 대한 고찰이나 청년 노동시장 분석에서 성별 특성 탐색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강순희, 2014: 319),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노동시장으로의 초기 이행 양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학력 상승, 취업과 경제활동 참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불연속성 해결이 중요 연구과제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으며 불연속성의 원인과 완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경력단절이전의 경력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전문직에 취업후 결혼한 여성의 경우 취업연속성이 높고(은기수·박수미, 2002: 129), 전문직 경력을 가졌던 경우 노동시장으로 복귀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오은진 외, 2009: 154-155). 이는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초기이행이 노동시장의 연속성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시의 경력이 노동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이순미, 2015: 99)는 것을 고려하면,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노동시장의 첫 이행의 중요성이 개인차원 뿐만아니라 전체사회 차원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직접 분석보다는 청년층 전체에 대한 이행 유형을 분석하면서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년층 이행 성과의 성별 차이를 발견하고 청년여성 노동시장의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장상수, 2008: 128; 문혜진, 2013: 222; 박미희·홍백의, 2014: 41; 최지원·정진철, 2017: 47; 변금선, 2018: 128).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청년남성과 청년여성의 이행 차이를 관측할 수는 있으나, 청년여성 이행의 분화와 이질성 등 청년여성 고유의 특성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일부 연구는 교육-취업-결혼으로 이행에서 계층화 등 청년여성 이행의 분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김혜경·이순미, 2012: 56). 하지만 청년여성의 이행 계층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의 분석기간이 외환위기 전후 이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청년여성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직장 이행 분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경기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지만(Schoon et al., 2001: 19; 문혜진, 2013: 222) 노동시장의 악화 영향은 성별로 차별화되며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취약하다(이순미, 2015: 122; 권현지, 2017: 162; 최지원·정진철, 2017: 54).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 상승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여성 학력 상승, 청년여성의 고용과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 청년여성 노동시장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¹⁾.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실업률이 2000년 7.5%에서 2017년 9.9%로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2005년부터 남성보다 높아져 대학진학률 차

기존 연구 결과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이행과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청년여성 세대간 차이가 있는지,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이 계층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탐색할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가설 1: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은 청년남성의 이행과 차별화되고 있다.

가설 2: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이 더 지연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가설 3: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I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1차~20차 조사자료와 3차, 9차, 11차, 19차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한다. 노동시장 이력을 포함하고 있는 직업력 자료와 학력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직장 이행과정을 재구성한다. 또한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 등 미시적 요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 자료 등을 통해 노동시장 환경 등과 관련한 거시적 요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분석대상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 노동시장 이행이 예상되는 청년여성이다. 본 연구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 청년여성은 해당 시기의 졸업이나 취업 등의 생애과정 사건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생애과정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할 경우 본 연구의 분석주체중인 하나인 최종 학교 졸업 지연 등에 따른 학교-직장 이행 지연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Buchmann and Solga, 2016: 2). 구체적으로는 2000년~2001년, 그리고 2007년~2009년에 만 19세에 도달한 청년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두 개의 코호트(cohort)를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코호트는 1981년과 1982년에 출생한 청년여성(이하 81~82 코호트)이며, 두 번째 코호트는 1988, 1989, 1990년에 출생한 청년여성(이하 88~90 코호트)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81~82 코호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

이가 2017년 현재 7.4%p로 벌어져 있고, 20~29세 여성의 고용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각각 2011년과 2012년부터 남성을 앞지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88~90 코호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최종 공개자료의 조사시점이 2017년이고 1990년 출생 여성이 분석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두 코호트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 분석기간은 만 19세부터 만 27세까지 9년으로 한정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결과, 81~82 코호트 244명과 88~90 코호트 260명으로 구성된 총 504명의 청년여성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청년여성의 기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unit: persons, 10 thousands won)

		81~82 cohort	88~90 cohort	Total
Observation		244 (48.41)	260 (51.59)	504 (100.0)
education	high school	64 (26.23)	26 (10.00)	90 (17.86)
	college	58 (23.77)	85 (32.69)	143 (28.37)
	university and above	122 (50.00)	149 (57.31)	271 (53.77)
marriage	married	55 (22.54)	46 (17.69)	101 (20.04)
	single, divorce etc	189 (77.46)	214 (82.31)	403 (79.96)
residence at age 19	seoul metropolitan	122 (50.00)	127 (48.85)	249 (49.40)
	others	122 (50.00)	133 (51.15)	255 (50.60)
parental education	middle or below	87 (35.66)	58 (22.31)	145 (28.77)
	high school	106 (43.44)	142 (54.62)	248 (49.21)
	college and above	51 (20.90)	60 (23.08)	111 (22.02)
median household income		322.65	386.32	341.72
median household asset		26320.85	26960.94	26515.25

Note: Distribution ratios within a profile (%) are in parentheses.

분석대상집단의 특성을 88~90 코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10.0%, 전문대 졸업 32.69%, 대학교 졸업 57.31%로 나타난다. 81~82 코호트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마지막 해인 만 27세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결혼한 비율은 17.69%이다. 81~82 코호트의 경우 22.54%가 만 27세 현재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만혼화 추세가 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 19세 시점의 거주지는 서울과 수도권 48.85%, 비수도권 51.15%로 81~82 코호트에 비해 수도권 거주비율이 조금 하락하였고,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수도권 인구 49.6%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부모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이하가 22.31%, 고등학교 졸업이 54.62%, 전문대 졸업 이상이 23.08%를 차지하고 있다. 81~82 코호트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사회 전반의 학력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의 중위값은 81~82 코호트에 비

해서 88~90 코호트가 높은 편이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분석변수와 변수별 측정방법은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는 학교-직장 이행 유형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집단기반분석을 활용하여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여 산출한다.

<Table 2>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 and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	
trajectory profile	categorical variable, profiles classified by school-to-work trajectory
Independent variable	
education	categorical variable, respondent's school leaving degree
marriage	dummy variable, married=1 others=0
parental education	categorical variable, father's highest educational level and mother's for missing data
household income	continuous variable, sum of various monthly incomes of a household adjusted with consumer prices index in natural logarithm form
household asset	continuous variable, sum of real estate and financial assets of a household adjusted with consumer prices index in natural logarithm form
residence at age 19	dummy variable, Seoul metropolitan region=1 others=0
regional unemployment rate	continuous variable, regional unemployment rate of youth aged 20~29

독립변수는 청년여성 자신의 최종 학력, 결혼 여부 등 인구학적 변수, 부모 학력, 가구소득, 가구 자산 등 가족 배경 변수, 19세 당시 거주지, 거주 지역별 20-29세 실업률 등 사회경제 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 학력은 아버지의 학력으로 측정하고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학력으로 대체하였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학력 수준에 따라 더미변수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등 조사된 모든 종류의 가구소득의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되며 분석기간인 9년간 가구소득의 평균값으로 산출된다²⁾. 가구자산은 거주주택과 거주주택외 부동산 등

2)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소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되고 20차 조사가 마지막 자료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가구소득은 조사 전월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을 포함한 부동산 가치와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각종 금융자산 가치의 합으로 측정되며, 분석 기간인 9년간의 가구자산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은 물가변동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되었고 실제 분석에서는 측정값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 자연로그값으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을 탐색하기 위하여 집단기반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이행 궤적을 식별하여 유형화하고,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집단기반궤적분석은 연속적인 사건들의 특성을 식별하고 유형화(Nagin, 1999)하여 변화 궤적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함께 종단적 변화분석에 활용되고 있으며, 유형 식별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김혜연, 2010: 148-150; 변금선, 2018: 122). 집단기반궤적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학교-직장 이행 궤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먼저 학교-직장 이행과정에서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구분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학업, 미취업, 취업으로 구분되고, 취업은 다시 직업지위와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여 재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은 고용주·자영업·가족종사자(이하 자영업),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이하 상용전문사무직), 임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이하 임시전문사무직), 기타 임금근로자(이하 기타직)으로 재구성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월단위로 세분화되어 108개월동안의 지위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분류를 토대로 궤적 유형수를 증가시키면서 집단기반궤적분석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평가하여 최적 모형을 선정하였다. 이행 궤적 함수는 청년여성의 이행 궤적의 복잡성, 108개월 동안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3차 궤적 함수로 설정하였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Adjusted BIC(ABIC) 등의 정보지수와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Nagin, Jones, Passos and Tremblay, 2018: 2019). 유형 수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낮은 정보지수, 5%이상 집단분류율(김혜연, 2010: 152), 분석대상간 비교분석의 효율성 등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집단기반궤적분석 절차에 따라 먼저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청년여성의 이행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분석대상인 청년여성과 동일한 연령대의 청년남성의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여 이행과정의 성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시간흐름에 따라 청년여성의 이행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년여성의 코호트별로 이행 궤적을 각각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다항로지회귀분석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등 이행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 이행의 계층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배경요인으로 부모 학력만 포함한 모형,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으로 구성된 모형 그리고 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자산을 모두 반영한 모형으로 나누어 추정

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 분석

가.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유형 분석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행과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여성의 이행 궤적을 분석한 결과, BIC 등 정보지수, 최소 5%이상 집단분류율 등을 고려할 때 6개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궤적의 유형별 특성을 정리해보면 <Table 3>과 같다.

먼저 Profile 1은 학교 졸업이 지연되고 직장으로의 이행도 늦어진 유형이다. 6개의 집단 중 2번째로 많은 26.19%가 속해 있다. Profile 1은 유형중 최종학교 졸업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데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졸업이 지연되었으나, 미취업기간 비중이 전체 집단에서 두 번째로 길고 졸업이후 최종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비율도 51.56%로 가장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학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92.42%로 전체 분석대상 청년여성의 평균인 53.77% 대비 매우 높다. 이들의 가족배경은 여타 집단보다 우월하게 나타난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6개 집단중에서 가장 높아 전문대 졸업 이상이 37.88%이며 전체 집단 평균인 22.02%보다 크게 높다. 가구자산도 3억 5791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2억 6515만원에 비해서 많은 수준이며 6개 집단중에서 2번째로 높은 집단이다. 이와 같이 이들은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구자산 등의 도움을 받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연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Profile 2는 학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면서도 profile 1과 유사하게 직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이다. 가장 많은 청년여성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전체의 29.37%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기간 중 학교에 약 2년간 머물렀고, 미취업 상태로 여타 집단보다 가장 긴 약 4.5년을 보냈으며, 최종 분석기간 시점에 미취업인 비율이 48.57%로 높은 편이다. 자영업과 기타직에 종사하는 기간이 전체 집단에서 가장 길다.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37.84%로, 전체 평균 17.86%에 비해 높은 편이며 결혼 비율도 34.46%로 평균 20.05%에 비해 매우 높다. 학교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 머물고, 최종적으로 미취업이 많은 이들 집단의 가구소득과 가구자산은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Profile 1과 유사하게 학교 졸업이 지연되었으나, 상용전문사무직 진입 비율은 높은 집단은 profile 3이다. 전체의 13.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profile 1 다음으로 학교에 머문 기간이 길고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이다. 분석기간인 9년중 약 5년, 다시 말해 평균 44.75% 기간동안 학교에 있었고, 4년제 대학이상 졸업생이 76.47%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졸업 후에도 미취업상태에 약 1.5년 동안 머물면서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모두 상용전문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형이다. 학

교-직장 이행 지연과 상용전문사무직 취업이라는 특성을 보유한 이들은 여타 집단보다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Table 3> Main characteristics by young women's profile

		Profile 1	Profile 2	Profile 3	Profile 4	Profile 5	Profile 6	Total
Observation(%)		26.19	29.37	13.49	13.69	9.33	7.94	100.00
average school-leaving age(year)		24.75	21.71	23.70	22.53	21.66	21.52	22.87
status (%)	student	58.54	18.36	44.75	32.93	12.45	9.04	33.15
	not employed	26.71	41.72	17.16	9.49	4.86	15.51	24.55
	employer, self-employed etc	2.22	6.53	1.30	0.62	1.11	3.45	3.14
	other worker	2.00	17.10	1.09	0.60	1.04	4.65	6.24
	temporary professional etc	5.95	5.05	2.93	1.28	2.65	10.69	4.71
	permanent professional etc	4.56	11.23	32.76	55.08	77.89	56.67	28.22
status at the last month (%)	student	7.81	2.14	0.00	0.00	0.00	0.00	2.68
	not employed	51.56	48.57	0.00	10.29	2.17	18.92	30.72
	employer, self-employed etc	4.69	10.71	0.00	1.47	0.00	5.41	4.95
	other worker	2.34	18.57	0.00	1.47	0.00	8.11	5.98
	temporary professional etc	16.41	6.43	0.00	0.00	2.17	0.00	7.22
	permanent professional etc	17.19	13.57	100.0	86.76	95.65	67.57	48.45
education (%)	high school	0.00	37.84	2.94	5.80	21.28	45.00	17.86
	college	7.58	36.49	20.59	39.13	53.19	32.50	28.37
	university and above	92.42	25.68	76.47	55.07	25.53	22.50	53.77
marriage (%)	married	13.64	34.46	5.88	18.84	12.77	22.50	20.04
	single, divorce etc	86.36	65.54	94.12	81.16	87.23	77.50	79.96
parental education (%)	middle or below	10.61	36.49	22.06	24.64	44.68	60.00	28.77
	high school	51.52	54.73	52.94	47.83	38.30	30.00	49.21
	college and above	37.88	8.78	25.00	27.54	17.02	10.00	22.02
residence at age 19 (%)	seoul metropolitan	50.00	47.30	47.06	50.72	48.94	57.50	49.40
	others	50.00	52.70	52.94	49.28	51.06	42.50	50.60
median household income (10 thousands won)		392.19	309.18	376.13	398.02	365.40	288.06	341.72
median household asset (10 thousands won)		35791	20605	41538	25799	30580	12265	26515

이들의 평균 가구자산은 전체 집단중에서 가장 많은 4억 1538만원으로 가구자산 측면에서 여타 집단보다 우월한 가족배경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 졸업 지연이나 졸업 이후 상용전문사무직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자산의 불평등 효과가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 다시 말해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Profile 1과 3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교육에서 직장으로 이행 지연이 사회계층 지위, 특히 자산의 불평등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Profile 3과 유사하게 최종 상용전문사무직 종사 비율이 높은 유형은 profile 4이다. 이들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기간은 분석기간 9년중 32.93%인 약 3.5년으로, 집단 평균 학업기간을 다소 하회한다. 분석기간의 55.08%를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고 미취업기간도 9.49%에 불과하다. 따라서 Profile 3과 달리 학교 졸업이 지연되지 않고 졸업과 함께 대부분 상용전문사무직에 취업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4년제 대학이상 졸업한 비율이 55.07%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이들 집단의 가구소득은 높은 편이나 가구자산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학업에서의 지연이 없고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이행한 전형적인 학교-직장 이행에는 가구자산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Profile 5는 profile 4과 유사하게 최종학교 졸업이 지연되지 않고 상용전문사무직에 진입한 경우이나 profile 4에 비해 학업기간이 짧은 유형이다. 상용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기간이 전체기간의 77.89%로 여타 집단 대비 가장 길다. 분석기간 최종시점에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종사하는 비율도 profile 3 다음으로 높다. 미취업기간도 전체 집단에서 가장 짧다. 전문대학 졸업 비율이 53.19%로 여타 집단대비 가장 높으나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은 25.53%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편이나 졸업과 함께 미취업없이 상용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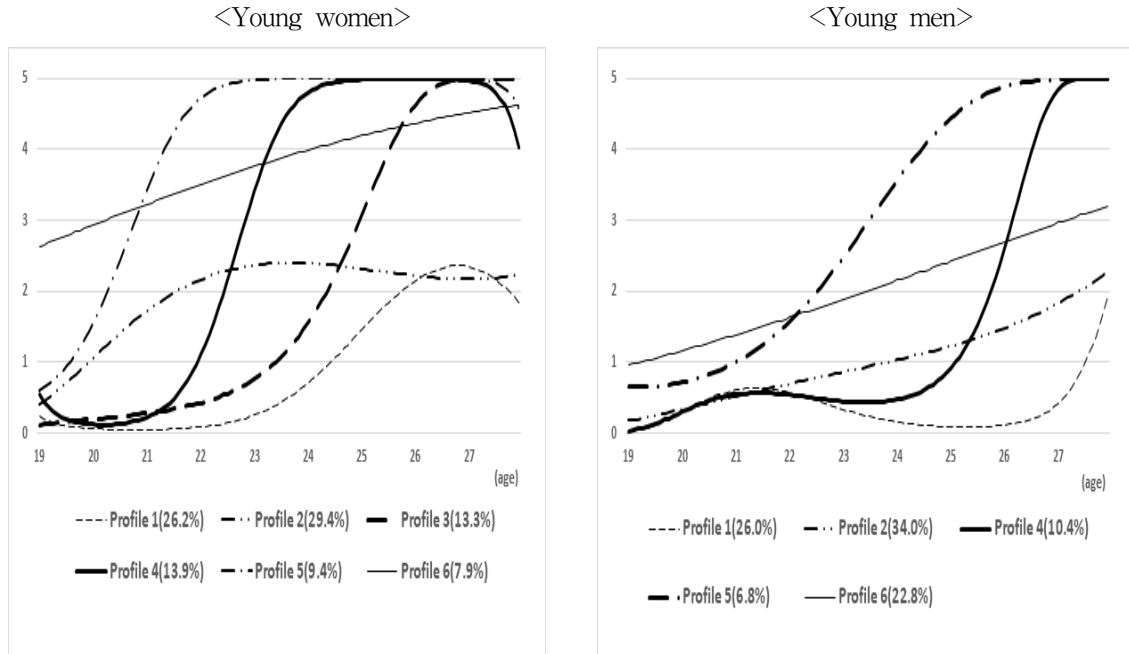
Profile 6은 학업기간이 짧고 상용전문사무직 종사 기간이 길어 profile 5와 유사하지만 각각의 기간이 profile 5에 비해 단축된 유형이다. 학교에 머문 기간이 전체 집단에서 가장 짧고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45.00%로 가장 높다. 상용전문사무직 종사 기간이 전체 집단중 두 번째로 길다. profile 4 대비 상용전문사무직 종사 기간은 약간 길지만 학업기간은 profile 4의 27.5%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이들의 가족배경은 전체 집단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졸이하 학력의 부모 비율이 60%로 전체 집단에서 부모 학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가구소득이나 가구자산도 전체 집단에서 가장 작은 수준이다.

나.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학교-직장 이행 비교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젠더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분석기간동안 같은 연령대에 속한 청년남성 604명에 대한 이행과정을 유형화하여 비교하였다. 청년남성의 이행 궤적에 대한 집단기반궤적분석 결과, BIC 등 정보지수, 최소 5%이상 집단분류율 등을 고려할 때 5개 유형이 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Figure 1>는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4>는 청년남성의 이행 유형의 주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 School-to-work transition trajectories for youth by sex



Note: 0 student 1 not employed 2 employer·self-employed·unpaid family worker 3 other worker 4 temporary (associate) professional·clerk·services worker 5 permanent (associate) professional·clerk·services worker

<Table 4> Main characteristics by young men's profile

		Profile 1	Profile 2	Profile 3	Profile 4	Profile 5	Profile 6	Total
Observation(%)		26.00	34.04		10.41	6.79	22.76	100.00
average school-leaving age(year)		27.23	24.16		25.39	22.64	22.02	24.49
status (%)	student	70.39	36.78		48.73	18.84	12.76	40.04
	not employed	26.05	47.28		25.30	26.58	36.79	35.72
	employer, self-employed etc	0.78	3.22		1.76	2.09	4.41	2.63
	other worker	1.04	8.53		2.44	3.54	33.92	11.38
	temporary professional etc	0.77	3.06		1.59	3.48	6.36	3.09
	permanent professional etc	0.97	1.13		20.18	45.47	5.76	7.14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남성의 이

행이 청년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종학력 졸업 연령이 24.5세로 청년여성의 22.9세보다 높다.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는 한국 청년남성의 경우 19세~27세 기간에 평균 2년여의 군복무기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두 집단의 이행 유형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성별 차이가 일부 발견된다. 청년남성의 profile 4, 5, 6은 청년여성의 profile 4, 5, 6과 유사하게 학교 졸업후 취업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청년남성의 profile 1은 연장된 학업기간과 지연된 직장으로의 이행이라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청년여성의 profile 1과 유사하다. 반면에 청년여성의 profile 3, 다시 말해 학교 졸업이 지연되고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상용전문사무직에 진입하는 유형이 청년남성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다. 청년여성의 profile 1과 3의 학업기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졸업이 지연된 청년남성 profile 1과 비교할 수 있는 청년남성 profile이 없는 셈이다. 셋째, 결과적으로 청년남성의 학교 졸업 지연은 직장으로의 이행 지연으로만 귀결되고 있다. 이는 청년여성의 학교 졸업 지연이 직장으로의 이행 지연(profile 1)과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진입(profile 3)이라는 상반된 이행 성과로 나타나는 것과 대비된다. 청년남성의 profile 4와 5는 청년여성과 동일하게 학교 졸업이후 상용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이지만 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기간은 청년남성의 profile 1에 비해 짧은 편이다. 미취업기간도 profile 1과 profile 4, 5가 비슷하며 청년여성의 profile 3보다 짧다. 따라서 청년남성의 경우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하기 위한 이행 지연보다는 학교 졸업후 노동시장 진입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청년남성의 profile 6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들은 짧은 학업기간과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직 종사라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청년남성의 22.76%가 속해 있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청년여성은 청년남성에 비해 학교 졸업 지연 유형이 많고 학교 졸업 지연후 상용전문사무직 진입 등의 이행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청년남성은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하기 위한 이행 지연보다는 학교 졸업후 취업이라는 전통적인 학교-직장 이행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학교-직장 이행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가설 1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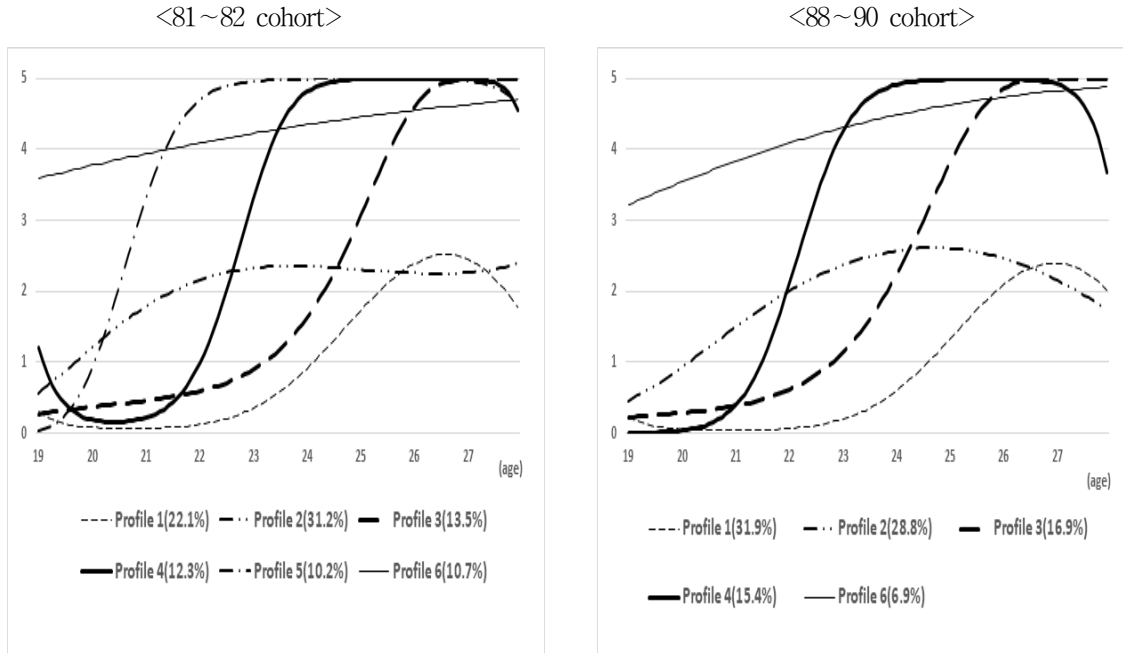
2. 청년여성 코호트별 학교-직장 이행 비교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행과정이 외환위기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는 81~82 코호트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기대되는 88~90 코호트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코호트의 이행 궤적에 대한 집단기반궤적분석 결과, BIC 등 정보지수, 최소 5%이상 집단분류율 등을 고려할 때 81~82 코호트는 6개 유형이 적합하고 88~90 코호트는 5개 유형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두 코호트의 이행 궤적은 <Figure 2>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두 코호트의 이행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지연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학교 졸업 지연과 고학력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두 코호트는 비슷한 이행 궤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profile별 구성 비율을 비교해보면, 학교-직장 이행의 지연되는 profile이 많아지고 있다. 학교 졸업과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지만 상

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하게 되는 고학력 취업준비생이 많은 profile 3은 13.5%에서 16.9%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업기간이 연장되지만 취업은 지연되고 있어 고학력 청년실업으로 지칭할 수 있는 profile 1 비율이 22.1%에서 31.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비교적 짧은 학업기간을 거쳐 조기에 노동시장의 상용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profile 5가 81~82 코호트와 달리 88~90 코호트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Figure 2> School-to-work transition trajectories for young women by cohort



Note: 0 student 1 not employed 2 employer·self-employed·unpaid family worker 3 other worker 4 temporary (associate) professional·clerk·services worker 5 permanent (associate) professional·clerk·services worker

<Table 5> Average school leaving age by young women's cohort and by profile

(unit: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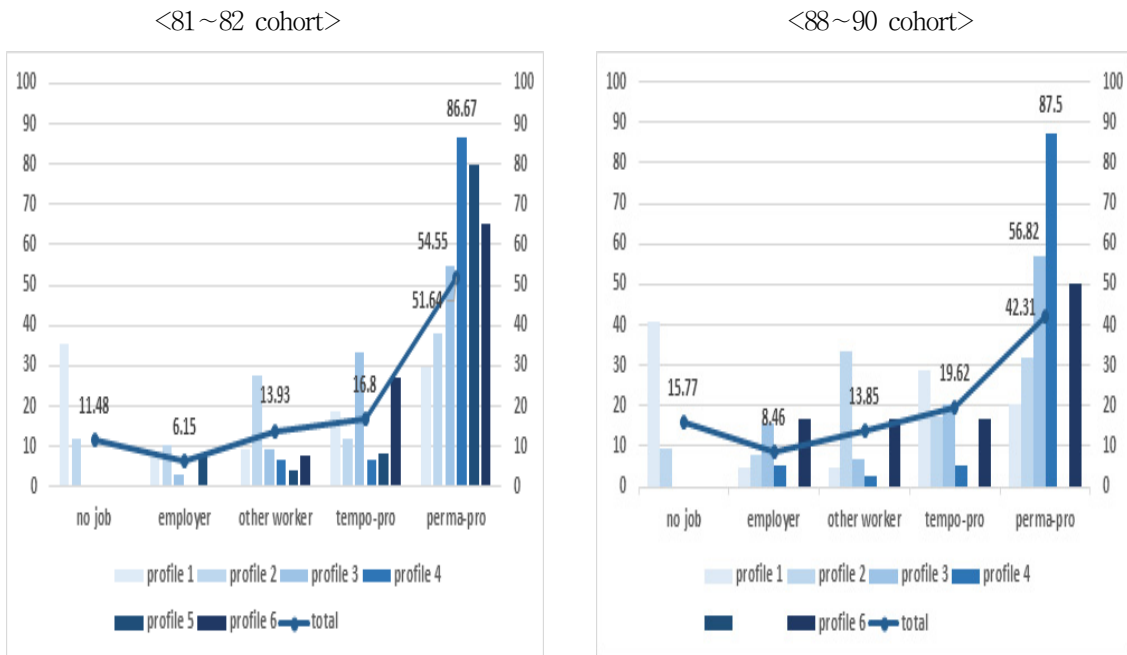
	Profile 1	Profile 2	Profile 3	Profile 4	Profile 5	Profile 6	Total
81~82 cohort (A)	24.60	21.58	23.57	22.62	21.68	21.79	22.68
88~90 cohort (B)	24.80	21.84	23.24	22.14		21.41	23.04
B-A	0.20	0.26	-0.33	-0.48		-0.38	0.36

학교 졸업 지연은 학교 졸업 평균 나이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Table 5>를 보면 전반적으로 88~90 코호트가 학교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음이 발견된다. 종합해보면, 청년여성의 학교-직장이행이 대체로 점차 지연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4년제 대학 진학률 상승과 상용전문사무직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직장으로 이행이 순조로운 profile 4은 12.3%

에서 15.4%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학업기간이 짧은 profile 5가 88~90 코호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상용전문사무직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먼저 이행의 시간 측면을 살펴보면, 학교 졸업후 직장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집단의 학업기간은 연장되고 있으나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하는 집단의 기간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ble 5>는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이행하지 못한 profile 1과 profile 2이 학교에 머문 기간이 공통적으로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업기간의 연장이 직장에서의 이행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반면에 학교-직장 이행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한 profile 4는 학업기간이 축소되고 있다.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진출하는 profile 3도 학업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여성 내부의 이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직장 이행에서 최초 직업에서도 청년여성의 이행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은 학교-직장 이행과정에서 코호트별 최초 직업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88~90 코호트는 81~82 코호트보다 미취업과 임시전문사무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상용전문사무직 비중이 9.33%p만큼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청년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것은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하는 profile 3과 profile 4의 비중이 81~82 코호트(13.5%, 12.3%)보다 88~90 코호트(16.9%, 15.4%)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으로 이행에서 청년여성 내부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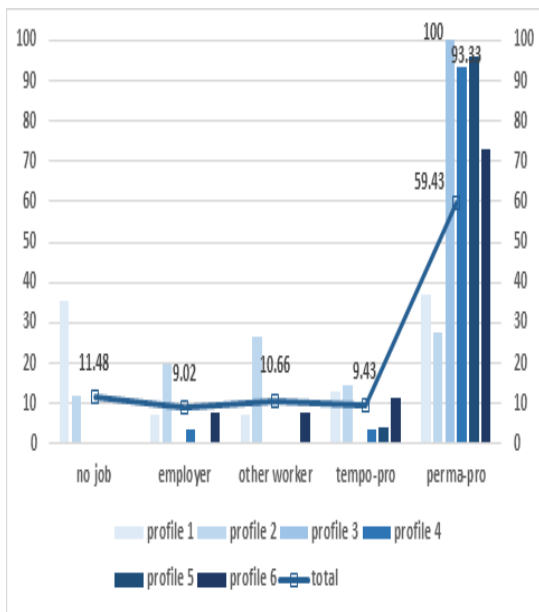
<Figure 3> First job of young women by coh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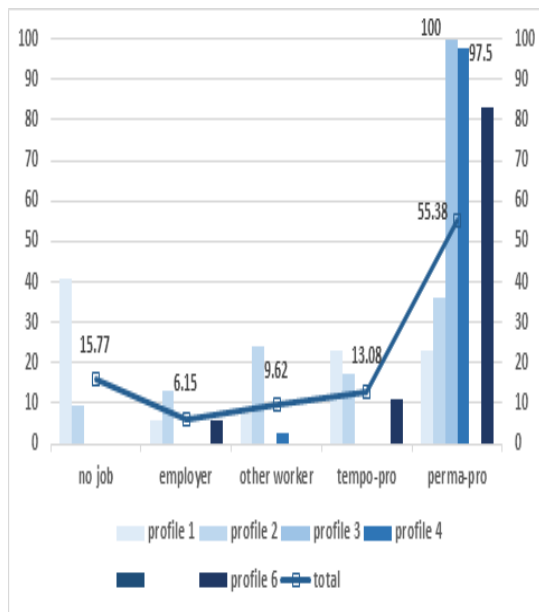
셋째,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행의 불안정성 증가는 이행 시간 측면과 이행 성과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행 시간 측면에서 보면 직장으로 이행이 순조롭지 못하면서 학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청년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학업후 직장으로 이행이 순조롭지 못하지만 학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profile 1과 2의 비중이 81~82 코호트의 53.3%에서 88~90 코호트의 60.7%로 증가하고 있다. 이행 성과측면에서 불안정성 증가는 최종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Figure 4>는 분석기간동안 확인된 최종 직업을 코호트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88~90 코호트는 81~82 코호트보다 미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상용전문사무직의 비중은 오히려 낮으며 임시전문사무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상용전문사무직 비율이 감소되고 임시전문사무직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은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직장 이행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Profile 3과 profile 4의 최종 직업에서 상용전문사무직 비중이 81~82 코호트와 88~90 코호트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년여성 내부에서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불안정성 증가와 함께 분절화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호트별 노동시장 진입이후 이행 결과에서도 불안정성 증가가 포착된다. <Figure 3>과 <Figure 4>를 비교하면 코호트별 노동시장 진입이후 이행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81~82 코호트의 경우 노동시장 이행을 거쳐 미취업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상용전문사무직의 비중도 증가한 반면에, 88~90 코호트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후 이행 결과 상용전문사무직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81~82 코호트 59.43%보다 낮은 수준인 55.38%에 머물고 있어 이행의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ure 4> Final job of young women by cohort

<81~82 cohort>



<88~90 cohort>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81~82 코호트에 비해 88~90 코호트의 경우 첫째 학교-직장 이행 지연이 현저해지고, 학업기간 연장과 고학력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둘째 순조로운 이행 집단의 학업기간 축소와 최초 직업으로 상용전문사무직 취업 증가, 미취업과 최초 직업으로 임시전문사무직 취업 증가 등 이행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고, 셋째 학업기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집단 증가, 최종 직업의 안정성 감소 등 학교-직장 이행의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이 더 지연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가설 2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 분석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profile이 5~6개 범주로 구분되므로 다항로지분분석을 통해 이행의 계층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다항로지분분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등을 통제한 후 가족배경으로 부모 학력만 포함한 M1,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을 포함한 M2 그리고 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자산을 모두 반영한 M3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청년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profile 6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코호트별로 학교-직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기간이 길고 직장으로의 이행도 순조롭지 못한 profile 1의 경우 본인 학력과 부모 학력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 거주는 부(-)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구소득이나 가구자산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학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나 직장으로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profile 2의 경우 본인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부모 학력, 코호트, 가구자산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학업기간이 길고 취업준비기간을 거쳐 상용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인 profile 3의 경우 본인 학력, 부모 학력, 가구자산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 거주여부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졸업 후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는 profile 4의 경우도 본인 학력, 부모 학력, 가구자산, 코호트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짧은 학업기간후 상용전문사무직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는 profile 5는 본인 학력과 부모 학력의 유의미한 영향은 없고 가구자산의 영향은 유의미하다.

추정결과를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배경 요인으로 부모 학력만 포함한 M1의 경우 profile 5를 제외하고 부모 학력의 계층화 효과가 발견된다. 가구소득도 포함한 M2에서도 부모 학력의 긍정적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가족배경 요인으로 가구자산까지 포함한 M3에서는 부모 학력의 계층 효과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구자산의 영향력은 profile 1을 제외한 모든 profile에서 포착된다. 특히 학교-직장 이행이 지연된 후 상용전문사무직에 진입하는 profile 3의 경우 가구자산의 설명력이 여타 profile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구자산 효과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은 학교-직장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가구자산이라는 계층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추론이다.

<Table 6> Multinomial regression predicting profiles of all cohorts (Ref: Profile 6)

	Profile1			Profile2			Profile3			Profile4			Profile5		
	M1	M2	M3	M1	M2	M3	M1	M2	M3	M1	M2	M3	M1	M2	M3
education (college and above)	15.76 ^{***} (0.39)	15.88 ^{***} (0.42)	17.06 ^{***} (0.42)	-0.13 (0.41)	-0.11 (0.44)	-0.13 (0.45)	2.57 ^{***} (0.82)	2.44 ^{***} (0.83)	2.32 ^{***} (0.84)	2.05 ^{***} (0.65)	1.93 ^{***} (0.67)	1.92 ^{***} (0.68)	0.86 [*] (0.50)	0.75 (0.52)	0.69 (0.52)
married	-0.30 (0.50)	-0.36 (0.51)	-0.26 (0.53)	0.60 (0.44)	0.61 (0.44)	0.74 (0.46)	-1.22 [*] (0.65)	-1.28 [*] (0.66)	-1.07 (0.68)	0.08 (0.52)	0.02 (0.52)	0.12 (0.54)	-0.61 (0.59)	-0.67 (0.59)	-0.51 (0.60)
parental education (high school)	1.75 ^{***} (0.49)	1.70 ^{***} (0.49)	1.75 ^{***} (0.50)	1.18 ^{***} (0.42)	1.19 ^{***} (0.42)	1.23 ^{***} (0.43)	1.12 ^{**} (0.51)	1.08 ^{**} (0.51)	1.12 ^{**} (0.51)	0.92 [*] (0.50)	0.89 [*] (0.50)	0.93 [*] (0.50)	0.34 (0.50)	0.30 (0.50)	0.34 (0.50)
parental education (college and above)	2.71 ^{***} (0.66)	2.57 ^{***} (0.67)	2.60 ^{***} (0.67)	0.56 (0.65)	0.57 (0.66)	0.59 (0.66)	1.60 ^{**} (0.69)	1.45 ^{**} (0.70)	1.43 ^{**} (0.71)	1.58 ^{**} (0.68)	1.47 ^{**} (0.69)	1.49 ^{**} (0.69)	0.74 (0.71)	0.60 (0.72)	0.62 (0.72)
household income		0.45 (0.39)	0.16 (0.47)		-0.08 (0.39)	-0.46 (0.43)		0.47 (0.39)	-0.37 (0.49)		0.40 (0.41)	0.13 (0.43)		0.47 (0.42)	-0.06 (0.48)
household asset			0.13 (0.16)			0.19 ^{**} (0.08)			0.55 ^{**} (0.22)			0.12 [*] (0.06)			0.31 [*] (0.16)
seoul metropolitan	-0.80 [*] (0.43)	-0.83 [*] (0.43)	-0.94 ^{**} (0.45)	-0.51 (0.39)	-0.51 (0.40)	-0.65 (0.41)	-0.82 [*] (0.45)	-0.85 [*] (0.45)	-1.15 ^{**} (0.48)	-0.58 (0.45)	-0.61 (0.44)	-0.71 (0.46)	-0.57 (0.47)	-0.61 (0.47)	-0.80 (0.49)
regional unemployment rate	-0.04 (0.14)	-0.05 (0.14)	-0.03 (0.15)	0.00 (0.13)	0.00 (0.13)	0.02 (0.14)	0.17 (0.15)	0.17 (0.15)	0.20 (0.15)	0.08 (0.15)	0.08 (0.15)	0.10 (0.15)	-0.03 (0.15)	-0.03 (0.15)	-0.01 (0.16)
cohort	0.73 [*] (0.44)	0.70 (0.44)	0.71 (0.45)	0.75 [*] (0.42)	0.76 [*] (0.42)	0.78 [*] (0.42)	0.74 (0.48)	0.71 (0.49)	0.88 [*] (0.49)	0.80 [*] (0.47)	0.77 [*] (0.47)	0.78 [*] (0.47)	0.21 (0.50)	0.18 (0.50)	0.24 (0.50)
constant	-15.1 ^{***} (1.25)	-17.7 ^{***} (2.46)	-18.6 ^{***} (2.51)	0.63 (1.17)	1.05 (2.39)	1.28 (2.44)	-3.48 ^{**} (1.62)	-6.03 ^{**} (2.70)	-6.70 ^{**} (2.80)	-2.44 [*] (1.39)	-4.62 [*] (2.67)	-4.29 (2.68)	-0.06 (1.42)	-2.62 (2.85)	-2.69 (2.92)

* $p < .1$, ** $p < .05$, *** $p < .01$

Note: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Table 7> Multinomial regression predicting profiles of 81~82 cohort and 88~90 cohort (Ref: Profile 6)

	Profile1						Profile3						Profile4					
	81~82 cohort			88~90 cohort			81~82 cohort			88~90 cohort			81~82 cohort			88~90 cohort		
	M1	M2	M3	M1	M2	M3	M1	M2	M3	M1	M2	M3	M1	M2	M3	M1	M2	M3
education (college and above)	16.17*** (0.48)	16.08*** (0.49)	15.84*** (0.50)	14.23*** (0.91)	14.07*** (0.99)	13.97*** (0.95)	1.85*** (0.66)	0.30*** (0.49)	1.71*** (0.67)	1.25*** (1.36)	1.16 (1.42)	0.91 (1.39)	1.87*** (0.71)	1.80*** (0.73)	1.76*** (0.73)	14.81*** (0.91)	14.74*** (0.98)	14.71*** (0.94)
married	0.73 (0.81)	0.69 (0.83)	0.73 (0.88)	-0.64 (0.70)	-0.69 (0.69)	-0.67 (0.69)	0.35 (0.89)	1.74 (0.66)	0.45 (0.96)	-1.72* (0.93)	-1.77* (0.92)	-1.71* (0.93)	1.44* (0.80)	1.42* (0.81)	1.52* (0.87)	-0.42 (0.76)	-0.45 (0.74)	-0.45 (0.73)
parental education (high school)	1.77*** (0.69)	1.75*** (0.69)	1.73*** (0.69)	1.75** (0.74)	1.69** (0.74)	1.70** (0.73)	1.62** (0.65)	1.61*** (0.65)	1.60*** (0.65)	0.27 (0.71)	0.24 (0.70)	0.28 (0.73)	0.70 (0.69)	0.70 (0.69)	0.69 (0.69)	0.90 (0.73)	0.89*** (0.73)	0.89 (0.72)
parental education (college and above)	2.35*** (0.78)	2.25*** (0.80)	2.24*** (0.80)	2.11*** (0.84)	1.94** (0.84)	1.94** (0.82)	1.50* (0.81)	1.41* (0.82)	1.40* (0.83)	0.40 (0.82)	0.29 (0.82)	0.29 (0.84)	1.05 (0.81)	0.99 (0.85)	0.98 (0.84)	0.49 (0.86)	0.42 (0.87)	0.43 (0.86)
household income	0.27 (0.50)	0.25 (0.55)	0.25 (0.55)	0.52 (0.44)	0.52 (0.44)	0.04 (0.66)	0.30 (0.49)	0.03 (0.57)	0.03 (0.57)	0.35 (0.44)	-0.57 (0.69)	0.24 (0.63)	0.22 (0.54)	0.22 (0.54)	0.03 (0.57)	0.24 (0.47)	0.05 (0.63)	0.05 (0.63)
household asset	0.02 (0.10)	0.02 (0.10)	0.02 (0.10)	0.32 (0.26)	0.32 (0.26)	0.32 (0.26)	0.17 (0.20)	0.17 (0.20)	0.17 (0.20)	0.63** (0.31)	0.63** (0.31)	0.63** (0.31)	0.12 (0.11)	0.12 (0.11)	0.12 (0.11)	0.12 (0.11)	0.12 (0.11)	0.12 (0.11)
seoul metropolitan	-0.81 (0.59)	-0.82 (0.59)	-0.82 (0.60)	-0.55 (0.56)	-0.56 (0.55)	-0.67 (0.57)	-1.06* (0.60)	0.32 (0.91)	-1.17* (0.62)	-0.36 (0.58)	-0.37 (0.57)	-0.60 (0.61)	-0.14 (0.60)	-0.16 (0.60)	-0.22 (0.62)	-0.61 (0.59)	-0.61 (0.58)	-0.65 (0.60)
regional unemployment rate	0.08 (0.17)	0.09 (0.17)	0.09 (0.18)	-0.23 (0.31)	-0.25 (0.30)	-0.25 (0.30)	0.24 (0.18)	-1.08 (0.61)	0.25 (0.18)	0.04 (0.32)	0.03 (0.32)	0.03 (0.32)	0.15 (0.18)	0.15 (0.18)	0.16 (0.19)	-0.04 (0.32)	-0.05 (0.31)	-0.04 (0.32)
constant	-16.3*** (1.62)	-17.8*** (3.00)	-17.6*** (2.98)	-12.0*** (2.23)	-14.7*** (3.48)	-15.0*** (3.47)	-3.40 (1.78)	0.24 (0.18)	-5.17* (3.14)	-0.45 (2.53)	-2.32 (3.76)	-2.78 (3.79)	-2.88 (1.72)	-4.13 (3.38)	-4.19 (3.42)	-13.8*** (2.36)	-15.0*** (3.72)	-15.1*** (3.71)

* $p < .1$, ** $p < .05$, *** $p < .01$

Note: Robust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학교-직장 이행에 대한 가구자산 효과가 변화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81~82 코호트와 88~90 코호트를 대상으로 profile 6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실시한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편의상 가구자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profile 3, 학교-직장 이행 지연은 profile 3과 유사하나 직장 이행이 지연되는 profile 1, 상대적으로 전형적인 이행을 통해 상용전문사무직에 진입한 profile 4를 비교분석한다. Profile 1의 경우 두 코호트 모두 본인 학력과 부모 학력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고 가구자산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Profile 4의 경우 본인 학력이 두 코호트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모 학력의 영향은 81~82 코호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88~90 코호트에서도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다. 가구소득이나 가구자산의 유의미한 영향도 두 코호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Profile 3의 경우 81~82 코호트에서는 본인 학력과 부모 학력이 영향을 크게 미치며, 수도권 거주도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구자산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88~90 코호트에서는 본인 학력과 부모 학력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가구자산이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직장 이행 지연없이 상용전문사무직에 진입하는 profile 4에서 가구자산 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profile 3이 학교-직장 이행의 지연을 통해 상용전문사무직에 진입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결과는 상용전문사무직 진입을 위한 학교-직장 이행 지연과정에서 가구자산이 도움을 주는 가구자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자산이 많은 청년여성이 이행 지연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으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이행 계층화와 사회계층구조의 확대 재생산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에 부모 학력효과 뿐만아니라 가구자산 효과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행의 계층화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는 가설 3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정과 이행 계층화 현상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20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여성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교-직장 이행과정을 집단기반분석으로 유형화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학교-직장 이행이 차별화되고 있다. 청년여성은 청년남성에 비해 학교 졸업 지연 유형이 많고 학교 졸업 지연 후 상용전문사무직 진입 등의 이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청년남성은 상용전문사무직으로 취업하기 위한 이행 지연보다는 학교 졸업 후 취업이라는 전통적인 학교-직장 이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정책이 입안되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지연이 현저해지면서 이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한편 이행과정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81~82 코호트에 비해 88~90 코호트의 경우 순조로운 이행 집단의 학업기

간 축소와 최초 상용전문사무직 취업 증가, 미취업과 최초 임시전문사무직의 증가 등 이행 양극화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학업기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집단 증가, 최종 직업의 안정성 감소 등 이행의 안정성도 악화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사회경제구조 변화의 학교-직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청년여성 내부에서 양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된 영향이 청년여성의 전체 노동생애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의 계층화에 부모 학력 효과 뿐만아니라 가구자산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81~82 코호트와 달리 88~90 코호트에서 상용전문사무직 진입을 위한 학교-직장 이행 지연과정에 가구자산이 도움을 주는 가구자산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는 사회계층구조가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에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여성의 코호트별 학교-직장 이행 비교분석 결과는 분석대상과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분석자료의 제약상 27세까지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으나, 결혼, 출산 등 여성의 노동생애과정상 특성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대상과 분석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의 이행과정 비교분석 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국 청년남성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에서 군복무라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분석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4. “청년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87(2): 317-347.
- 공주·신광영. 2018.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세미나 발표 자료.
- 권현지. 2017.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17』 통계청 pp. 138-148.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워킹페이퍼』 8(8).
- 김혜경·이순미. 2012. “‘개인화’와 ‘위험: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내부의 계층화.” 『페미니즘 연구』 12(1): 35-72.
- 김혜연. 2010. “우리나라 중, 고령 여성의 생애 노동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출산코호트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141-169.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민현주. 2011.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4(1): 53-72.
- 민현주. 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한국사회학』 46(2): 61-87.
- 박미희·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연구』 16(1): 321-359.
-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 신광영. 2013.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오은진·민현주·김지현. 2009.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 결정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141-162.
- 은기수. 2018.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117-150.
- 은기수·박수미. 2002.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e) 분석.” 『한국인구학』 25(2): 107-138.
-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노동경력 및 임금 궤적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31(2): 91-129.
- 임정준. 2010.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여성학』 26(4): 39-61.
- 장상수. 2008.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6): 106-139.
- 장상수. 2015.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연구』 88(1): 491-541.
- 정수남·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실업자’들의 방황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 사회』 23: 195-264.
- 통계청. 2017. 『2016년 소득분배지표』 (2017. 5. 25. 보도자료) (2018년 4월 21일 접근).
- 허은. 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7(2): 241-266.
- Brzinsky-Fay, Christian. 2007. “Lost in Transition? Labour Market Entry Sequences of School

- 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 409–422.
- Brzinsky-Fay, Christian. 2014. "The Measurement of School-to-work Transitions as Processes: About events and sequences." *European Societies* 16(2): 213–232.
- Buchmann, Marlis C. 1989. *The Script of Life in Modern Society: Entry into Adulthood in a Changing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chmann, Marlis C., and Irene Kries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Buchmann, Marlis C., and Heike Solga. 2016. "School-to-work transitions across time and place – Introduction and summar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6: 1–2.
- Dabla-Norris, Ms Era, Ms Kalpana Kochhar, Mrs Nujin Suphaphiphat, Mr Frantisek Ricka, and Evridiki Tsounta.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eyne, Stefanie, and Michael Gebel. 2016. "Education effects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in Egypt: A cohort comparison of labor market entrants 1970–2012."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6: 37–49.
- Hillmert, Steffen. 2002. "Labour Market Integration and Institutions: An Anglo-German Comparis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6(4): 675–701.
- Kerckhoff, Alan C. 2000.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Springer, Boston, MA, 453–474.
- Nagin, Daniel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157.
- Nagin, Daniel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agin, Daniel S., Bobby L. Jones, Valeria Lima Passos, and Richard E. Tremblay. 2018.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27(7): 2015–2023.
- Sandefur, Gary D., Jennifer Eggerling-Boeck, and Hyunjoon Park. 2005. "Off to a Good Start?: Postsecondary Education and Early Adult Life." pp. 292–319. in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edited by Rumbaut, Rubén G., Frank F. Furstenberg, and Richard A. Setterst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oon, Ingrid, Andrew McCulloch, Heather E. Joshi, Richard D. Wiggins, and John Bynner. 2001.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in a changing social context." *Young* 9(1): 4–22.
- Schoon, Ingrid, Andy Ross, and Peter Martin. 2009. "Sequences, Patterns, and Variations in the Assumption of Work and Family-Related Roles: Evidence from Two British Birth Cohorts." pp. 219–242, in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Globalisation, Individualisat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edited by Schoon, Ingrid, and R. K. Silbereis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oon, Ingrid, and Mark Lyons-Amos. 2016 "Diverse Pathways in Becoming an Adult: The Role of Structure, Agency and Context."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6: 11-20.